

A-1 자가 결합조직이식을 이용한 구개열의 폐쇄 및 치조제 증대술

허인식*, 허 익, 박준봉, 이만섭, 권영혁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주질환이나 외상으로 발치된 후 심하게 흡수된 치조제나 선천적인 이유로 인해 심하게 위축된 치조제는 흔히 심미적인 보철수복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구개열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천적인 치조제 결손의 경우에는 기저골 결손과 동반된 형태를 나타내므로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완벽한 치주적, 보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어렵다.

구개에서 채취한 자가 결합조직이식을 이용하여 구개열 환자의 치조제를 증대시키고 구개열을 폐쇄 시키므로 향후에 보다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교정 및 보철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상증례를 시행하였다.

구순구개열을 갖는 16세의 여성환자로 교정치료를 받던 중 상악 우측 측절치 부위의 치조제 증대술을 위해 교정과에서 치주과로 의뢰하였다. 상기환자의 구개열에 치주탐침자를 협설측 혹은 치근단측으로 삽입하여 본 결과 비강내로 완전히 탐침자가 관통할 정도로 상악 우측 측절치 협측의 치은치조점막 경계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치조정을 넘어 구개측으로 길게 구개열이 존재하고 있었다. 파노라마 사진상에서도 상악 우측 측절치 부위의 치조골 및 기저골이 완전히 결손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개열을 폐쇄하고 치조제를 증대시키기 위해 결체조직 이식술을 3회에 걸쳐서 시행하였다. 3차수술이 종료된지 2개월 후 술전에 존재하였던 구개열은 폐쇄되었으며 상당한 치조제 증대를 얻었음을 보고한다.